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younh@s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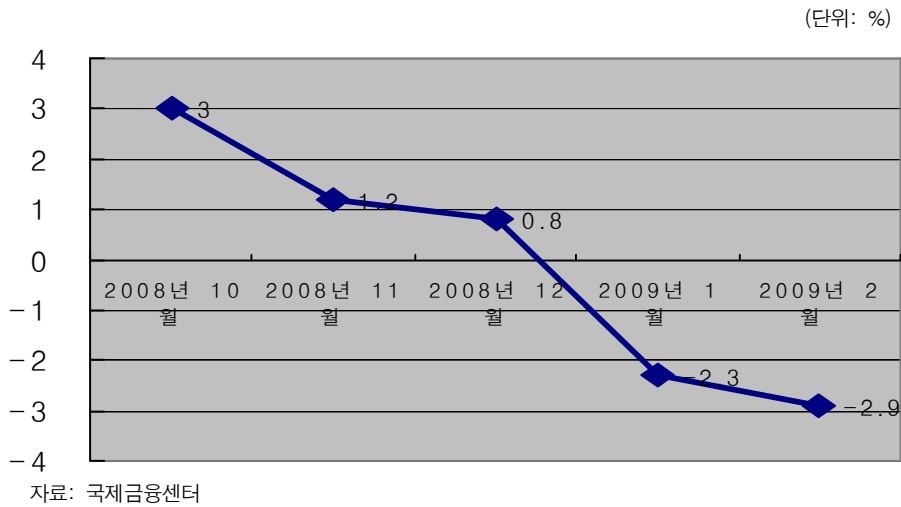
I. 최근 국내 경제여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침체를 겪고 있고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3.4%를 기록하였다. 주요 외국은행들은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9%로 추정하고 특히 IMF는 2009년 국내경제 성장률을 -4%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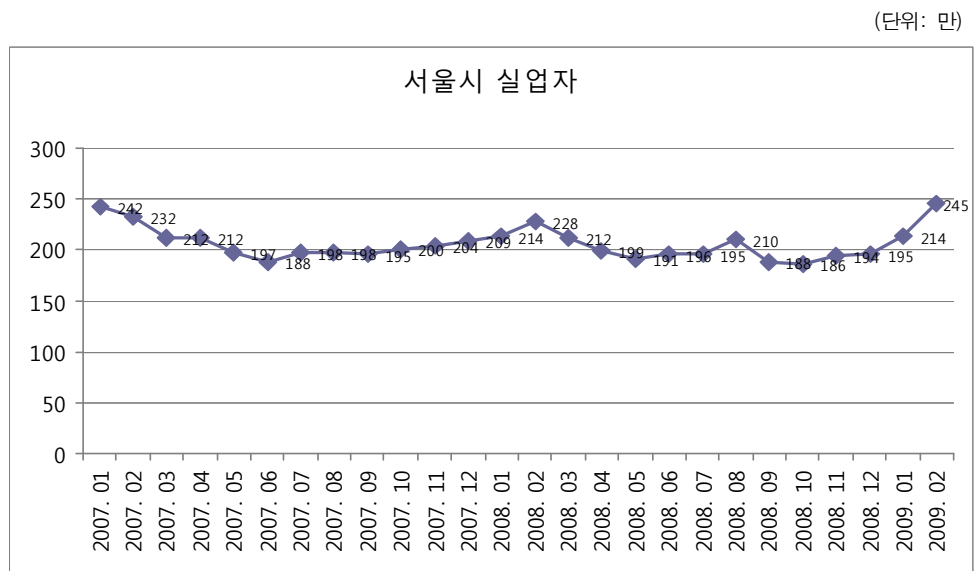
한편 실업률은 경제침체가 진행됨에 따라 2008년 하반기부터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2009년 2월 실업률이 3.9%로 상승하고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4만 2천명 감소하였다. 실업자 수를 보면 2009년 2월 실업자 92만 명이고 조만간 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2009년 2월 청년실업률 8.7%로 2005년 3월(8.8%) 이후 가장 높다. 2009년 2월 서울시 실업률은 거의 5%에 달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191천명에서 2009년 2월 245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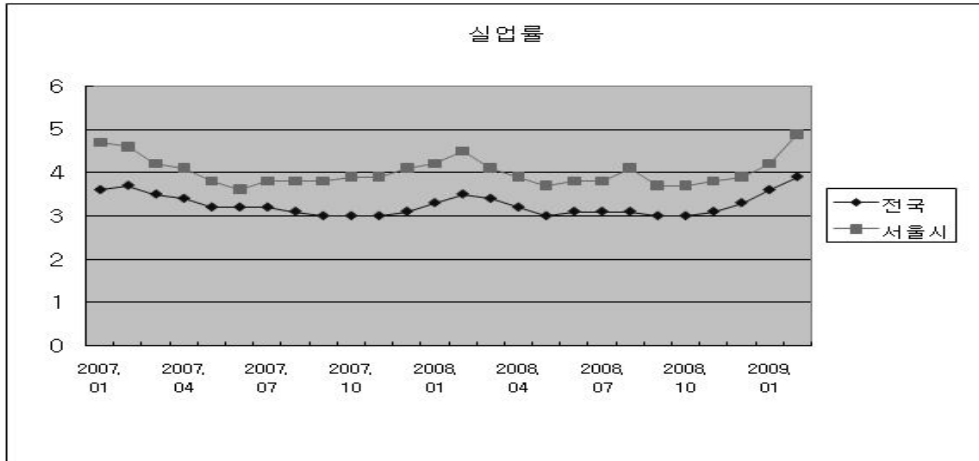
- 학력: 오레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최근연구: 의료관광, 고령자 고용



[그림 1] 국제은행 국내 성장률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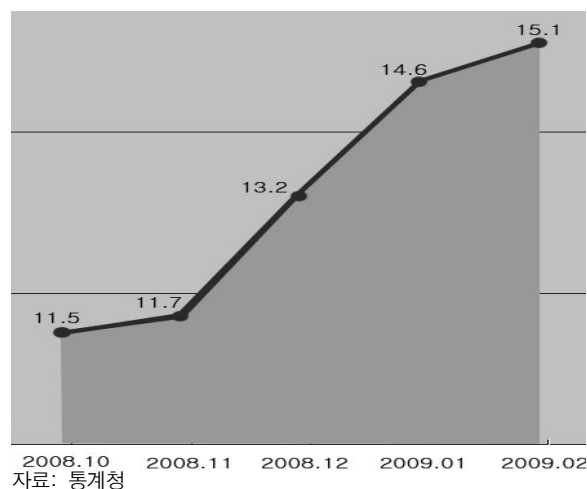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실업자수 추세



[그림 3] 전국 대비 서울시 실업률 추세

단순 실업률보다도 취업이 어려워 구직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한 구직 단념자와 취업을 하더라도 불완전 고용을 한 취업자를 포함하여 실업률을 구한 체감실업률은 더욱 악화되었다. 2009년 2월 현재 할 일 없이 쉬는 사람 175만, 취업준비자 57만, 구직단념자 17만, 불완전취업자 17만을 합하면 약 270만명이 되고 이를 공식실업자와 합하면 총 358만명에 달하고 이를 실질실업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질실업자는 2008년 11월 275만명에서 2009년 2월 358만명으로 약 70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체감실업률은 2008년 10월 11.5%에서 2009년 15.1%로 증가하였다.



[그림 4] 체감실업률 추세

II. 정부의 일자리 창출

1. 2009년 슈퍼추경

정부는 2009년 당초 사회적일자리 12만개와 중소기업인턴 2.5만개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금년 초에 들어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외로 빠르고 최악의 고용상황이 예견되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특별히 추경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빈곤층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상 최대의 추경 예산인 28조의 슈퍼추경을 짜고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였다. 슈퍼추경 가운데 상당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과 공공부문의 인턴이다.

2. 주요 개별 일자리 정책

(1) 희망 공공근로 프로젝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에게 공공근로를 하도록 하고 6개월 동안 월 88만 원을 지급한다. 약 40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2) 고용유지금

중소기업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 급여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하여 14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3) 사회적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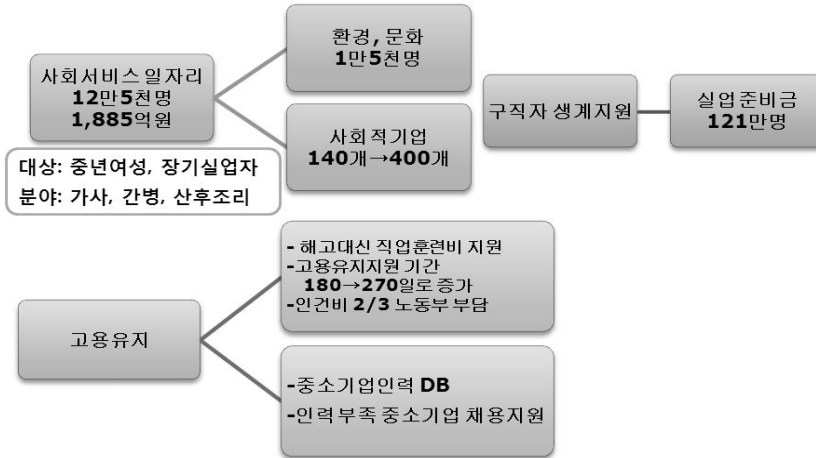
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기존 12만 일자리에외에 3만2천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한다. 주요한 예를 보면 대졸 미취업자를 학교 혹은 방과후 학교에 보조교사로 일하게 하여 2만5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비슷하게 대졸미취업자 조교, 대졸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모교에서 조교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7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4) 중소기업인턴

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해 기존 2.5만개이외에 약 3만7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5) 대졸미취업자 직업교육

대졸자 가운데 취업이 안된 인원 7만5천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그림 5] 정부 일자리 창출 체계

<표 1> 2009년 추경예산 일자리 대책

사업내용	추경금액	대상 인원
청년층일자리제공확대	3052억원	6만8000명
희망근로프로젝트시행	2조원	40만명
사회서비스확대	3000억원	3만3000명
자활근로일자리확대	460억원	1만명
노인일자리확대	277억원	3만5000명
일자리나누기·지키기분야	5000억원	22만명
고용유지지원금확대	3070억원	14만3000명
무급휴업근로자휴업수당지원	992억원	6만명
교대제전환지원	182억원	1만7000명
교육·훈련분야	1580억원	33만명
대졸미취업자프로그램 (Stay-in-School Program)	203억원	9만4000명
청년층뉴스타트프로그램	92억원	5000명
일용근로자직업훈련프로그램	100억원	10만명
실업자교육, 대기업·중소기업협력	730억원	5만명
생계지원및고용촉진분야	1조6000억원	38만명
실업급여확충	1조6000억원	37만5000명
신규채용장려금지원강화	115억원	-
빈일자리취업장려수당지원	111억원	6000명
지역고용촉진지원	30억원	600명

자료: 기획재정부

3. 중앙정부 일자리 창출 특징 및 문제점

중앙정부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당장 일자리가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 생활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로 말미암아 실업자도 2009년 3월 95만2000명에서 4월 93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4월 보건 사회복지업에서 13만8000명, 전문 과학기술업(8만3000명), 공공행정(7만2000명) 등 공공분야에서 모두 29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하지만 중앙정부 일자리 공급방식은 문제도 있다. 먼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들이 비록 일을 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경험과 직업능력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보다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이러한 일자리 공급방식은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 혹은 꿈과 비전을 주는 일자리가 아니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임시적인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년들의 특성과 그들의 일에 대한 희망과 욕구를 이해하여 일자리 공급방식과 구조를 잘 설계하여야만 그들을 유인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일자리는 민간부문의 일자리로 정착하게 하는 일자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의 일자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되어 세심하게 설계된 일자리 구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인력양성을 하여 업계를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업계를 위한 수요창출 지원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Ⅲ. 서울시 일자리 창출 방향

1. 서울시의 2009년 희망근로사업

서울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통상적으로 해오던 공공근로를 확대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환경개선, 정보처리, 복지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약 19,000명을 6개월간 고용하려고 한다. 이들 희망일자리를 유형화하면 학교, 복지기관, 공공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정보자료를 정리하고 입력하는 DB형, 상수도, 화

재방지사설,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형, 공원, 하천, 등산로를 관리하는 환경형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의 희망일자리 유형과 일자리 수행체계 역시 중앙정부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앞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¹⁾

〈표 2〉 서울시 희망일자리

유형	사업명	일자리내용	인원
인력파견	복지시설도우미	복지시설 인력지원	1,000
	책도우미	공공도서관 인력지원	200
	어르신돌보미	소방서에서 독거노인 돌보미	200
	어린이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	1,500
	식품안전지킴이	음식점, 시장 원산지 실태조사	1,000
	학교가꾸기	초중고 인력파견, 학교정비	4,000
	시립병원간병인	시립병원 저소득층 환자 간병	100
DB 작업	건축물 DB	건축물대장 전산화	300
	물품관리 DB	공유재산 전수관리	200
시설물관리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	맨홀, 배수지, 수도계량기 점검	600
	교통시설물점검	자전거도로, 정류소 점검	500
	화재예방	소화전, 소화기 점검	500
	아리수물탱크청소	물탱크전수조사, 청소 및 직결급수 유도	500
	한강시설물관리	수상시설물관리	500
환경	한강공원녹지지킴이	한강공원 녹지관리	600
	어린이공원 정비	어린이공원시설 유지관리 청소	1,500
	등산로장비사업	목책계단설치, 편의시설설치, 수목식재	1,500
	공원환경 정비	공원시설 유지관리 청소	500
	수변구역정비	악취방지, 준설	600
기타	교통질서계도	불법 주정차지역의 주차계도	1,000
	도시광산	폐가전에서 금속추출	2,000
	경력단절여성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직업상담, 컴퓨터교육, 청사관리	200

자료: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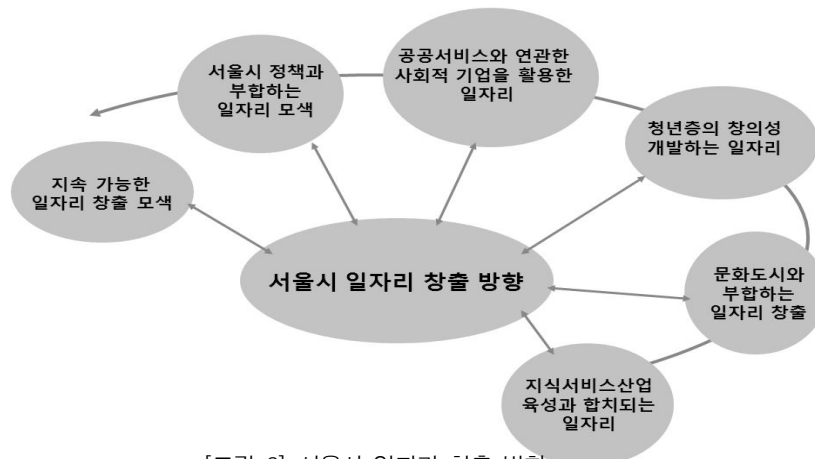
1)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2009년 5월 17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수는 모집인원 25만 명의 30% 수준인 7만7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신청의 마감시한(20~22일)이 다가왔지만 현재 모집인원은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19일 현재 시·도별 희망근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5만1812명 모집에 7043명만이 지원해 13.6%의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2. 서울시 일자리 창출 방향

앞서 보여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방향은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단기간에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위기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대증요법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회복이 더딜 것이므로 충분히 납득이 된다.

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산업 및 노동시장구조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보는 것이다. 둘째, 서울시의 녹색산업, 문화산업, 복지산업 정책과 부합하는 일자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시정방침에 따라 문화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다. 넷째, 청년층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획일화된 인턴 일자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당장 일자리가 되지 않지만 청년층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관련교육을 받아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장경제는 경기변동과 고용불안정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혹은 보완책으로 비교적 경기영향을 덜 받는 복지, 교육 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자립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기보다는 임금지원에 의한 일자리로 공공근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이 가능한 분야를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모색한다.



[그림 6] 서울시 일자리 창출 방향

IV. 일자리 창출 사례

1. 학교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교사의 열효율 미비

학교의 창호와 건물외벽이 단열이 안 되어 에너지효율이 미흡하다. 미국에서도 경기회복 사업일환으로 노후된 교사를 개축하고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학급 수는 초등학교 21,000학급,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급수가 각각 18,500 학급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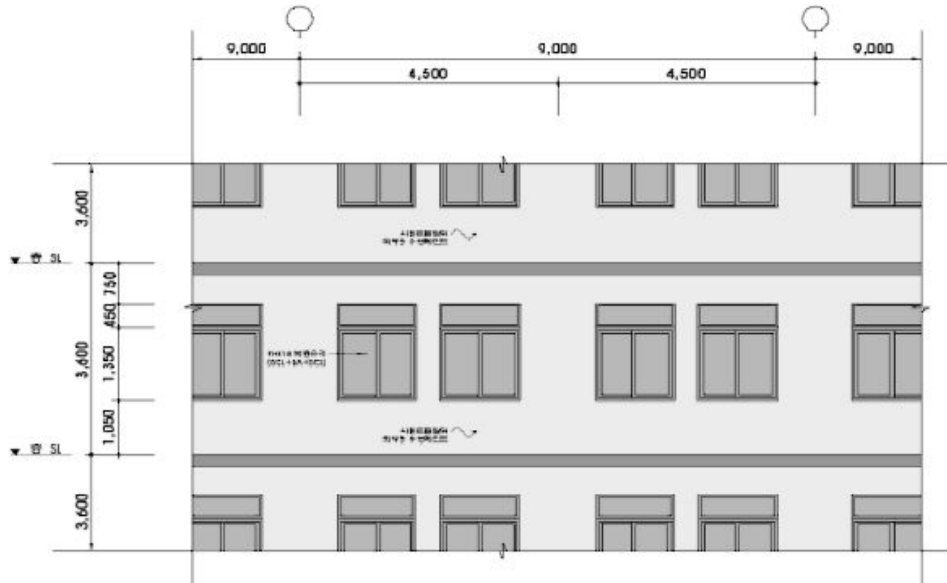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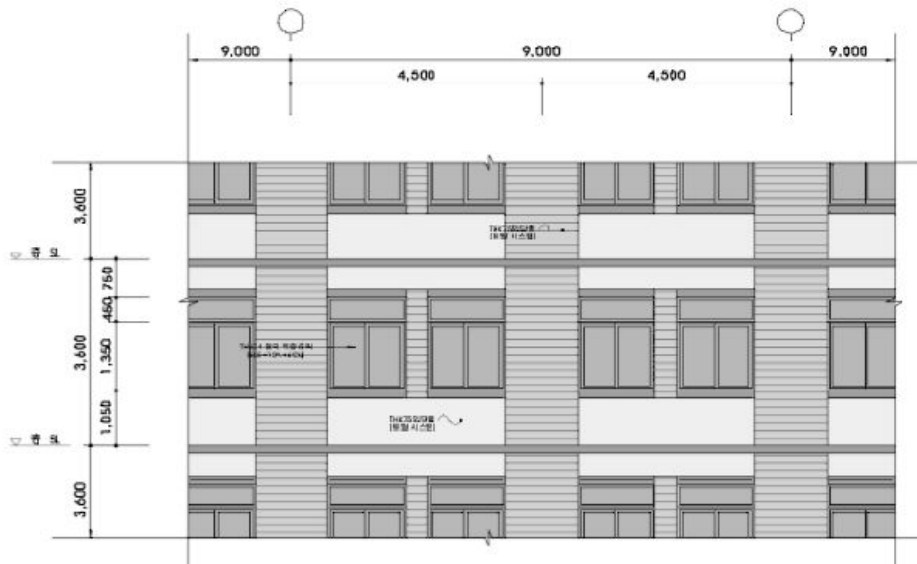
[그림 7]서울시 초중고 학급수

(2) 리모델링을 통한 열효율 개선과 일자리 창출

학교 리모델링은 공사가 방학 3개월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약조건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창호를 복층유리로 바꾸고 건물외벽을 드라이비트 패널을 덧붙이는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건물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 교사 1개당 약 7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약 만개의 교사 수리하면 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공사는 건설기간 동안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에너지절약으로 서울시가 저에너지 도시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그림 8] 공사 전 외벽 입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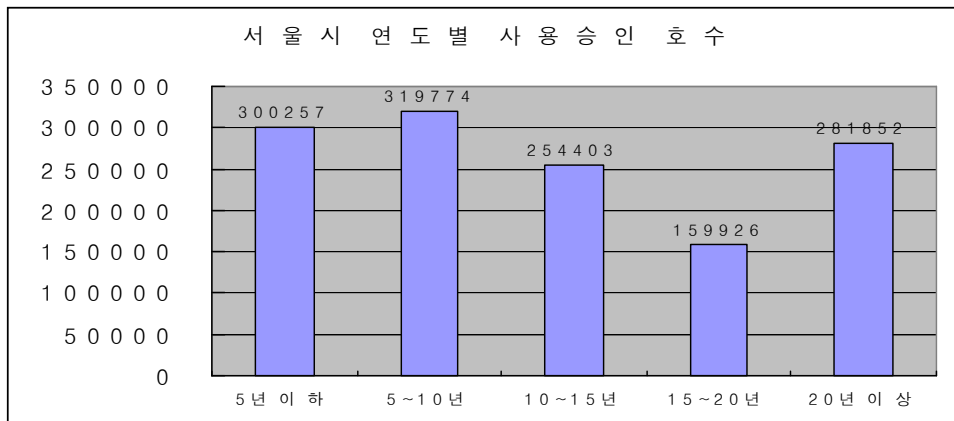


[그림 9] 공사 후 외벽 입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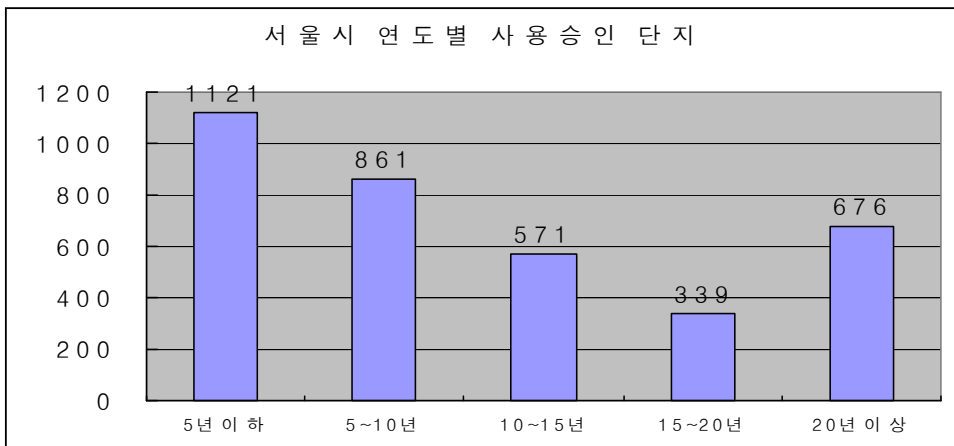
2. 아리수 직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공동주택 옥내배관 불량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 배관과 옥내배관이 매우 노후화되어 개별가정의 수도물 수질이 좋지 않다. 또한 단지 내 저수조에 상당기간 보관되어 수질이 악화된 물이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에 15~20년 아파트 단지가 571곳, 총 160,000호가 있고 더욱 오래된 20년 이상 아파트 단지가 676곳, 총 282,000호가 있다.



[그림 10] 서울시 연도별 아파트 사용승인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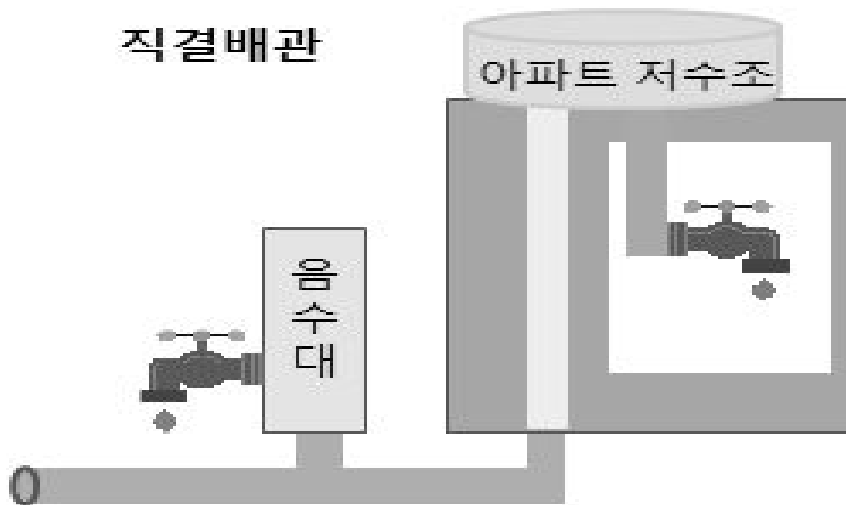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주택국

[그림 11] 서울시 연도별 아파트 사용승인 단지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주거단지 외부의 노후된 지선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지선상의 급수배관을 통과하는 수도물의 수질은 양호하다. 반면 아파트 내 가정은 수도물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나 정수기 물 역시 수질은 좋지 않다.

(2) 아리수 직결로 음용수 확보와 민간사업

민간사업자는 서울시 아파트단지 안에 지선상의 급수배관과 연결되는 직결관로를 설치하고 음용대를 설치하여 단지 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아리수 직결배관을 통한 물의 수질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2] 아리수 직결사업 배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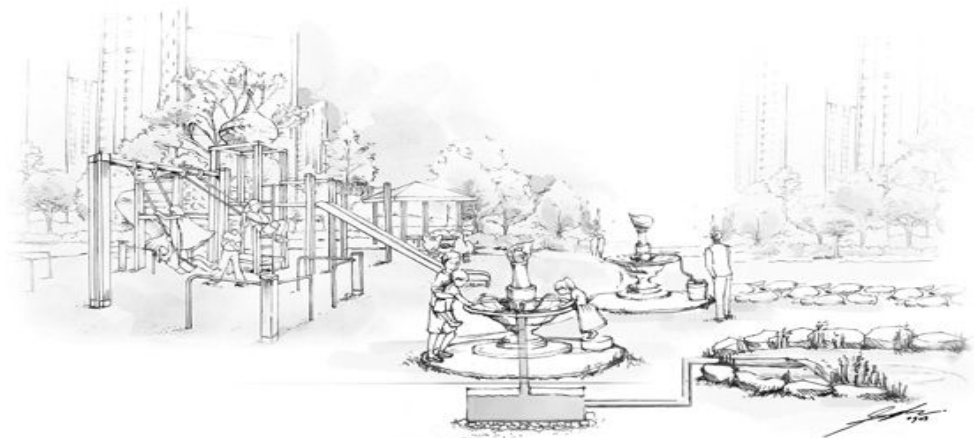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들은 주민 편의시설, 공동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는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사업권을 얻고 아파트단지에 아리수 직결사업을 마케팅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리수를 음용수로 공급할 수 있으며, 아파트 주민은 적은 투자와 비용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3) 사업체계 및 효과

민간사업자는 아파트단지 당 약 3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고 수질관리와 음수대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을 아파트로부터 징수하여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회수한다. 민간 사업자는 음수대에서 방출되는 물을 사용하여 음수대 부근에 미니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환경개선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사업의 효과는 시설을 건설하는 동안 발생하는 고용 과 운영기간 동안 보유인력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단지 1,000곳, 320,000호를 대상으로 하며 총 투자금액은 300억에 달할 것이다. 한 단지로부터 시설이용료 및 관리료로 월 500,000원을 받는다면 민간사업자는 연 60억의 수입을 얻 게 되고 민간사업자는 약 100명을 고용할 수 있다.



[사진 1] 사업체계 및 효과



<그림 13> 아리수 직결사업 예상도

3. 사회적멘토제

지식서비스 분야의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재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퇴직 전문인력을 선별하여 사회적 멘토(Social Mentor)로 지정하고, 다양한 멘토사업에 연계한다. 동 사업을 통해 퇴직한 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지식과 경험을 중소기업에게 전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1) 사업의 구성요소

사업의 구성요소는 크게, 퇴직 전문인력 풀(SEP: Senior Expert Pool)의 구축, 사업 관리기관 설치, 사회적멘토 사업 실시의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퇴직 전문인력 풀(SEP)은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중 퇴직자의 경력을 제공하는 DB를 구축하고, 관리기관에서 이들에 대해 사회적멘토 인증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리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는데, 사업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인력풀의 제작 및 제공, 관리, 각종 멘토사업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멘토 인증제를 통해 선별한 퇴직 인력을 이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과 연계시켜주는 1:1 매칭사업을 실시한다.



[그림 14] 사회적멘토제 사업 구성요소

(2) 사례;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 SES(Senior Experten Service)

이 재단은 국제협력을 위한 독일 산업 재단으로 비영리 조직이며, 은퇴자의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전문 퇴직인력의 경험은 전문 인력 및 관리직 모두에게 유용한 것으로, 전문 퇴직인력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직업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기술협력을 위한 정부 기관 같은 조직이나 협회에도 고용되어 있다. 활동적인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7,500명 이상의 전문 퇴직인력을 자발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중소 규모의 산업이나 대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숙련된 기술을 전달하며, 50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분야에 전문지식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본사는 본(Bonn)에 있으며, 독일 내에 14개의 사무실과 100개 이상의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1971년 바덴뷔템페르크 주의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여 주의 지원을 받았으나,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독립적인 유한회사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자체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개발, 마케팅 분석, 기업 지도평가를 위주로 독일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1983년 퇴역기술자(55~70세)의 경험 및 기술을 전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제간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 재단이 조성되고 있다. 소요예산의 80% 이상이 공적자금으로 조달되는 비영리기관으로, 연방경제협력개발성, GTZ, EU, 기타 SES지원협회 등이 재정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저가로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SES를 통해 퇴역기술자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저가로 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술자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는 등, 실업문제와 중소기업 진흥 정책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독일내 본부(Bonn 소재) 및 12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50여 개국에 70여명의 대리인이 상주하고 있다.

4.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저소득층 밀집지역, 임대주택지역을 중심으로 100개 강좌를 시범 개설한다.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대상 주민자치센터, 학교, 공공기관 등의 교육장소에서 방과후교실, 무료예술교실을 실시한다. 주로 생활공예, 리폼공예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취미교양뿐 만 아니라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1) 국내사례: 신나는 문화학교 (Jobarte)

2004년부터 실업극복국민재단 지원을 얻어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으로 실시된 “신나는문화학교” (Jobarte)가 있다. 이 학교는 폭발적 인기를 얻었고 2008년 1월 사회적기업 등록 후 일부 강좌를 유료로 전환하였다. 현재 64명의 종업원이 있고 60여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피아노, 바이올린, 오카리나 등 악기교실, 미술교실, 사진교실 등).



[사진 2] Jobarte의 활동

5. 초중등학교 디자인교실

전문디자이너가 학교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학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학생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가 구체화하는 것이다. 사업방식은 소외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학급 100개를 선정하고, 각 학급별로 1인의 전문가를 파견한다.

(1) 해외사례

영국 dott 07 페스티벌의 에코디자인챌린지를 들 수 있다. 학생, 교사, 디자이너, 학부모, 지역기관 및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학생들이 학교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 제출하면 전문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이 만든 디자인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일부 제안은 기업의 스폰서십을 통해 상용화되는 단계에 있다.



[사진 3] dott07 에코디자인챌린지

7. 로봇의 창의적 연구개발

(1) 배경

현재 청년일자리 사업은 단순 업무 때문에 청년들의 인적자원개발과 경력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위기 기간 중 단기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는 향후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청년층의 창의력과 “젊은 끼”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같은 방안으로 최근에 확산되고 문화적 화두인 기술과 문화의 결합의 기회를 청년층이 활용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로봇 산업은 차세대 중요한 산업이지만 이를 시민에게 다가서도록 하는 매개체 혹은 매개산업이 중요하다. 현재 로봇의 응용은 게임, 스포츠 경쟁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개그, 뮤지컬과 비언어 공연예술(Non-verbal performance)인 난타, 비보이, 격투기 등은 청년들의 창의력과 도전으로 문화예술 시장의 한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로봇 응용사업은 이들 문화예술 인력과 로봇 공학인력이 모여서 로봇 개그, 뮤지컬, 난타 등 비언어 공연예술(Non-verbal performance)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관객들은 이러한 로봇 공연작품으로부터 사람과 로봇의 공연까지 즐길 수 있고 업계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사례

2009년 5월 국립극장 “엄마와 함께하는 국악보따리”에서 로봇 창을 주제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악작품을 공연 예정이다. 여기에 로봇 세로피(무게 55kg, 키 125cm)가 출연하여 사랑가를 부른다. 로봇은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하루 백만 원에 대여한다. 한편 노동부 2009년 사회적일자리 사업에서 문화예술인과 태권도 체육학과 졸업생이 만드는 작품 “태권도 뮤지컬”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공연예술분야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 4] “엄마와 함께하는 국악보따리”에 출연하는 로봇

(3) 사업의 체계와 종류

이공계, 예능계 학생과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 구성원의 프로필, 작품 시나리오, 연구개발 개요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이를 심사하여 5개 팀(팀당 10명)을 선정하여 1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주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이 종료하면 작품을 관객에게 발표하여 시장성을 테스트 한다.

사업은 상업용과 교육용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상업용 사업은 극장에서 1시간 정도 공연하고 공연료를 받을 수 있는 상업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용 사업은 학교, 청소년체육관, 과학관 등에서 로봇이 출연하는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을 작품활동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용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장기적 방안과 사업의 효과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로봇공연단을 창단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공연 로봇 스쿼드를 맞춤형 제작하여 로봇공연과 서울시의 공식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공계, 예능계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끼”를 발산하여 새로운 문화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 시장성 있는 작품이 나오면 이들 청년들은 새로운 공연예술 장르를 만들 수 있고 로봇의 응용을 촉진시켜 기술발전을 꾀할 수 있다.



[사진 5] 로봇개그



[사진 6] 로봇난타



[사진 7] 로봇 사물놀이

